

한국어 장소로서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 교육 연구

- 중국어 개사 ‘在’ 의 대응을 중심으로 -

왕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학과)

A Study on the Korean ‘-e(에), -eseo(에서)’ Education

- Focusing on the Response of Chinese ‘zai(在)’ -

Wang, Yuan*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mparison Korean “-e(에), -eseo(에서)” with the Chinese “zai(在),” analyze the errors of using “-e(에), -eseo(에서),”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eaching required for Chinese learners to reduce these errors. Referring to mean place, “-e(에)” and “-eseo(에서)” generally correspond to “zai(在)” in Chinese, but “zai(在)” in Chinese does not completely correspond to “-e(에)” and “-eseo(에서)” with the meaning of position or place. Chinese learners are often misunderstood when they use “-e(에)” and “-eseo(에서).”

Key words : ‘-e(에), -eseo(에서)’, ‘zai(在)’, Chinese learners, errors, the teaching method, Chunsuk Oh, Democracy, Byungchul Hahn

I. 서론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조사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에 조사가 없어서 한국어 조사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 조사를 대응하는 개사가 있긴 하지만 의미, 기능에 따라 조사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특히, 부사격조사

의 경우 한 조사가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난점이 된다. 이중에 부사격조사 ‘-에, -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장소로서의 ‘-에’와 ‘-에서’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장소로서의 ‘-에, -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在’로 대응되지만 중국어 개사 ‘在’는 장소로서의 ‘-에, -에서’와 완전히 대응되지 않는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실제로 ‘-에, -에서’를 사용할 때 의미를 혼동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에, -에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염준(2007), 석견·성운숙(2008), 신호경(2008), 김석기(2011), 왕소소(2012), 조재형(2014), Kang(2015) 등이 있다. ‘-에, -에서’에 관한 연구로 장소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염준(2007), 왕소소(2012)가 있는데, 염준(2007)은 처소 의미로 쓰이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를 혼용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말뭉치를 구축하여 실제 용례를 통해 ‘在’와 ‘-에, -에서’가 대응되는 예문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어 ‘在’와 한국어 ‘-에, -에서’의 대응 관계를 규명하였다. 왕소소(2012)는 소재로서의 ‘-에, -에서’와 전치사 ‘在’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에, -에서’의 오류 양상과 원인을 밝히고 교육 방안까지 모색했다. 하지만 ‘-에, -에서’와 ‘在’는 각각 어떤 장소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체로 ‘-에, -에서’를 연구 대상으로 고찰한 논문은 많았지만 ‘-에, -에서’의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특히 오류 양상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까지 고찰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장소로서의 ‘에, 에서’와 중국어 개사 ‘在’를 비교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에 관한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II.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와 중국어 개사 ‘在’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본다. 본고는 주로 어순적 특성, 문법적 특성 및 분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어순적 특성부터 살펴본다.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다. 하지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이다. 한국어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관계사 역할을 한다.¹⁾

따라서 한국어 조사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본다.”에서처럼 앞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주어(주격조사), 목적어(목적격조사), 부사어(부사격조사)의 기능을 갖는데 반드시 서술어 앞에 온다.

1) 박덕유(2012), 『학교 문법론의 이해』, 역락, p. 127.

중국어 개사는 명사 및 명사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사라고도 한다. 중국어 개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개사구(介宾短语)를 이루고 주로 부사어를 담당하는데 어떤 조건 하에 관형어, 보어가 되기도 한다. 부사어를 담당할 때 문장 구조에서 개사는 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부사어+주어+서술어’의 문장 구조이다. 개사는 문장 맨 앞에 주어와 서술어 앞에 위치하고 주로 처소, 시간, 목적 등의 의미를 표시한다. 또 한 가지는 ‘주어+부사어+서술어’의 문장 구조이다. 여기서 개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주어 뒤에 와 서술어 앞에 위치함으로써 주로 시간, 처소, 대상, 비교, 방향 등의 의미를 표시한다.

그리고 예문 개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보어의 기능을 할 때 문장 구조는 ‘주어+서술어+보어’의 경우도 있다. 이런 부류의 개사들은 ‘于, 向, 自, 到, 在, 给, 往’ 등이 있다. 개사와 뒤에 오는 명사가 결합하여 관형어의 기능을 할 때 중심어 앞에 위치하는데 반드시 ‘的’을 붙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문법적 특성이다. 본고는 주로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와 중국어 개사 ‘在’를 연구하므로 조사와 개사의 문법적 특성을 구체적인 설명대신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문법적 특성

한국어 조사의 문법적 특성	중국어 개사의 문법적 특성
①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서 나타남. ②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의 문장 성분을 표시함. ③ 간혹 부사 및 부사구와 결합하는 조사도 존재함. ④ 여러 개의 조사가 연속적으로 결합이 가능함 ⑤ 조사는 생략될 수 있음. 특히 구어의 경우, ⑥ 조사와 결합하는 단어의 받침소리 유무에 따라 같은 의미 기능을 하는 조사의 형태가 다름. -이/가, -은/는, -을/를, -와/과, -(으)로 등 ⑦ 조사는 부정부사와 결합하지 못함.	①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서 나타남. ② 명사성(名词性) 성분 앞에 위치하여 주로 부사어, 보어, 관형어를 담당함. ③ 개사 뒤에 반드시 명사구나 명사성 특성을 가진 성분과 결합함. ④ 두 개사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없지만 한 문장에서 같은 구조 성분이 아니면 결합이 가능함. ⑤ 대부분 개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장소, 시간 의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끔 생략이 가능함. ⑥ 개사는 형태 변함이 없음. ⑦ 개사 앞에 부정부사와 결합이 가능함.

세 번째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분류이다.

조사는 다른 말과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학교문법에서 형태를 중심으로 격조사를 분류하되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서술격, 부사격, 호격’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 조사의 분류²⁾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께서(높임), -에서(단체), -서(사람의 수 '혼자서')	
	서술격조사	이다	
	목적격조사	-을/를	
	보격조사	-이/가	
	관형격조사	-의	
	호격조사	-아/야, -(이)여, -(이)시여	
	부사격조사	처소(-에, -에서, -한테, -께, -에게)	도구(-로써, -로)
		자격(-로, -로서)	시간(-에)
		지향점(-로, -에)	낙착점(-에, -에게)
		원인(-에)	소재지(-에)
출발점(-에서, -에게서, -한테서)		변화(-으로, -가/이)	
공동(与共)(-하고, -와/과)		인용(고, 라고)	
	비교(-처럼, -만큼, -대로, -하고, -와/과, -보다)		
접속조사	-과/와, -(에)다, -하고, -(이)며, -랑		
보조사	-도, -까지, -조차, -마저, -서건, -대로, -같이, -만, -뿐, -부터, -밖-에, -(이)나, -(이)든지, -(이)라도, -나, -나마, -야말로, -커녕, -(이)느들,		

박덕유(2012)는 부사격조사를 처소, 도구, 자격, 시간, 원인, 낙착점, 지향점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 처소에 관련한 부사격조사로 ‘-에’, ‘-에서’, ‘-에게’, ‘-한테’, ‘-께’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다르지만, 본고에서 刘月华·潘文·潘文·潘文(2007)를 참고하여 개사를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实用现代汉语语法』 개사 분류

空间(공간)	동작이 진행이나 발생하는 장소	在(-에/에서), 从(-에서)
	출발점	[从, 自, 于(-에서)]
	방향	[打, 由(-에서)], [朝, 向, 往(-로)], 沿着(-에 따라), 到(-까지)
时间(시간)	[从, 自, 自从, 由, 于, 打(-부터)], 在(-에)	
对象(대상)	행위의 대상	[对, 对于(-에/에게), [关于, 至于(-에 관해서)], [把, 将(목적어를 동사 앞에 전치시킬 때 쓰임)], [为, 给, 替(-에게...을 위하여), 叫(让)(시키다), 被(피동)]
	비교의 대상	比, 于(-보다)
	공동의 대상	和, 跟, 同 (与) (-과/와/하고)
依据(근거)	[按, 按照, 依, 依照, 照, 据, 根据, 以, 凭, 论(-에 의거하여)]	
缘由(원인)	[由于(-로 인하여)], [为, 为了, 为着(-를(하기) 위하여)]	
其他(기타)	连(-조차/까지), 除了(-제외하다), 趁(-하는 김에)	

2) 박덕유(2012), 『학교 문법론의 이해』, 역락, p.131

중국어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개사로는 ‘在’와 ‘从’가 대표적이다. 한국어는 문장에서 주로 조사와 어미를 통해 각 단어들의 문법 기능을 나타내지만 중국어는 주로 어순을 통해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표 2>와 <표 3>의 내용을 결합하여 비교해서 살펴보면 중국어에는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존경의 뜻을 가진 조사 ‘-께서’, ‘-께’에 대응되는 중국어 개사는 없다. 한국어 조사 중 일부가 대응되는 중국어가 있는데 이는 개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의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보조사 ‘만’과 대응되는 중국어는 ‘只’인데 ‘只’는 부사이다.

Ⅲ. 장소로서의 ‘에, 에서’와 ‘在’의 의미 기능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부사격조사는 한국어 격조사의 한 가지로 의미 기능에 따라 ‘처소, 자격, 도구, 시간, 비교’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어 주로 체언 뒤에 사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갖는다. 이 중 ‘-에, -에서’는 대표적인 부사격조사이다.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유사점을 가진 중국어 개사는 주로 ‘처소, 시간, 방향, 도구, 피동, 원인’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在’는 처소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개사이다.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모두 격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소이며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 구조 중에 부사어 성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의미적, 통사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의미 기능과 통사적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개사를 부사격조사와 완전히 대응하는 문법 범주로 인식하기 쉽다. 이를 학습자들에게 보다 잘 인식시키기 위해 장소로서의 ‘-에, -에서’의 의미, 기능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에, -에서’의 장소 의미

가. ‘-에’의 장소 의미

부사격조사 ‘-에’는 ‘장소, 시간, 도구, 비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고는 장소로서의 ‘-에’를 연구 대상으로 보아 장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에’의 장소 의미

‘-에’의 의미	결합 가능한 서술어	예문
존재하는 장소	‘있다, 없다’와 결합함.	(1) 우리 학교는 인천에 있다. (2) 오늘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살다, 머무르다, 발생하다, 모이다’류 동사와 결합함.	(3) 나는 인천에 살고 있다.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장소	‘앉다, 눕다, 놓다’등과 결합함	(3)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목표가 되는 장소	‘이동 동사’라는 ‘가다, 오다, 다니다, 들어가다’ 등 동사와 결합함.	(5)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 (6) 한국에 왔다.
도착하는 장소	‘이르다, 도달하다, 도착하다’와 연결함.	(7) 한국에 도착한다.
닿고 접하는 장소	무정명사의 경우, ‘닿다, 붙다, 묻다’ 등 동사와 결합함. 유정명사의 경우, ‘부딪치다, 마주서다, 직면하다’ 등 동사와 결합함.	(8) 그는 차에 부딪쳤어도 멀쩡했다.
근원이 되는 장소	‘드러나다, 나오다, 등장하다, 기인하다’ 등 동사와 결합함.	(9) 그것은 구약성경에 나온 이야기이다.

예문(1), (2)는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주로 ‘-있다, -없다’와 결합하여 ‘-에 있다/없다’의 문법 형태로 쓰인다. 예문(3)에 나온 ‘-에’는 사건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항상 ‘살다, 머무르다, 발생하다, 모이다’류로 표현되는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이때의 ‘-에’는 ‘-에서’로 교체할 수 있다. 예문(4)에 나타난 ‘-에’는 명사가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곳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사용되는 부사격조사 ‘-에’이다. 이 경우에는 항상 동사 ‘앉다, 눕다, 놓다’ 등과 결합하여 쓰인다. 예문(5), (6)의 ‘-에’는 행동의 목표가 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여 쓰여 ‘-로 이동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항상 ‘가다, 오다, 다니다, 들어가다’ 등 이동 동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이는 ‘로’로 교체할 수 있다. 예문(7)은 이동이나 사건의 도달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항상 ‘이르다, 도달하다, 도착하다’와 연결하여 함께 쓰인다. 예문(8)은 닿은 데나 물건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 붙여 쓰여 ‘-과/와 마주 닿다’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주어가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에 따라 다르다. 무정명사의 경우 그것이 닿아 있는 장소를 나타내고 ‘닿다, 붙다, 묻다’ 등 동사와 함께 쓰인다. 유정명사의 경우 ‘부딪치다, 마주서다, 직면하다’ 등 동사와 함께 쓰인다. 예문(9)는 ‘드러나다, 나오다, 등장하다, 기인하다’와 같은 동사와 결합하여 출현하는 근원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상으로 ‘-에’는 주로 사람이나 사물이 단순히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으며 행위가 발생해서 만든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장소로서의 ‘-에’는 일반적으로 동작이 없거나 동작은 있지만 지속성이 없는 동사와 결합하여 쓴다.

나. ‘-에서’의 장소 의미

〈표 5〉 ‘-에서’의 장소 의미

‘-에서’의 의미	예문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	(1) 학교에서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었어요.
출발점이나 시작점이 되는 장소	(2) 나는 중국에서 왔다. (3)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다. (5) 우리 반에서 영수가 가장 공부를 잘해요.

예문(1)은 명사가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문(2), (3) 중에 나온 ‘-에서’는 추상적인 대상 혹은 구체적인 장소에 붙어 상황이 시작된 근원이나 출처임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에서’는 많은 경우 ‘-(으)로부터’로 바뀌 쓸 수 있다. 예문(4), (5)는 어떤 사실의 공간적인 배경,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다. ‘-에’와 ‘-에서’의 의미 비교

‘-에’와 ‘-에서’를 비교해보면, ‘에’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지점을 가리키며, ‘-에서’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따라서 ‘-에’는 위치, 존재, 이동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쓰이며, ‘-에서’는 일반적인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그 외의 많은 동사가 올 수 있다. 또한 ‘-에’와 ‘-에서’가 같이 쓰이는 경우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 1) 나는 인천에 산다.
- 2) 나는 인천에서 산다.

위에서 (1)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2)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동작이나 생활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2. 중국어 개사 ‘在’의 장소 의미

중국어사전을 살펴보면 ‘在’는 개사일 뿐만 아니라 동사가 되기도 한다. 핵심 의미는 ‘존재하다’라는 뜻이다. 개사로 명사나 명사구 앞에 붙이고 동작이나 행위에 상관있는 장소, 시간, 범위, 조건 등을 이끌 것이다. ‘-에, -에서’는 부사어로 담당할 수 있는 것에 비해 ‘在’는 부사어뿐만 아니라 보어도 담당할 수 있다. ‘在’는 항상 [개사 ‘在’ + 장소]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이에 장소로서의 ‘在’를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기능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가. 개사 ‘在’의 통사적 기능

본고에서 ‘在’의 통사적 기능은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在’와 보어로 쓰이는 ‘在’를 포함한다.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在’의 통사적 기능

통사적 기능	예문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	
부사어로 쓰이는 ‘在’	(1) 我 在 便利店 打工 나 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2) 他 在 公园里 听了 一场演唱会 그 에서 공원 들었다 콘서트	그는 공원에서 콘서트를 들었다.	
	(3) (在) 学校 门口 停着 一 辆 汽车 (에) 학교 앞 세워 있다 한 대 자동차	학교 정문 앞에 자동차 한대가 세워져 있다.	
	(4) (在) 学校 正门 见! 에서 학교 정문 만나다	학교 정문에서 만나자.	
	(5) 오늘 (在) 图书馆 人 很多 今天 에서 도서관 사람 많다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	
	동작을 발생하여 상태를 유지하는 장소	(6) 你 让 他 在 屋 里 等等 당신 시키다 그 에서 방 안 기다리다	그 사람이 방 안에서 기다리라고 해요.
		(7) 他们 在 走廊里 打打闹闹 그들 에서 복도 떠들고 치고 박고 소란을 피우다.	그들은 복도에서 떠들며 치고 박고 소란을 피운다.
보어로 쓰이는 ‘在’	(8) 雨水 打 在 脸上 빗물 내리다 에 얼굴	빗물이 얼굴에 내린다.	
	(9) 花 落 在 地上 꽃 떨어지다 에 땅	꽃이 땅에 떨어졌다.	

우선, 부사어로 쓰이는 ‘在’를 살펴보면 주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예문(1) 중에 ‘在’는 동작이 나타나는 장소를 가리키고 (2)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3)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전체가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在’ + 장소 + 동사 + 着]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문(4)에서 청유, 명령을 표현할 때, 동사는 분명한 부착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서술어가 타동사이든 자동사이든 일반적으로 ‘在’는 생략된다. 또한 문장 맨 앞에 부사어의 기능을 갖는 지명, 기관 등 처소 명사들은 공간성과 사물성을 겸하는데 이런 명사들의 공간성을 강조하거나 명사 뒤에 방위사(方位词)를 함께 사용할 때 개사 ‘在’는 생략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인데 항상 ‘多’ ‘少’ 등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 ‘在’ 뒤에 처소사(處所詞)는 ‘사람’이 존재하는 장소이다. 이때는 장소라는 ‘在’가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동작을 발생하여 상태를 유지하는 장소이다. ‘在屋里’, ‘在走廊里’는 모두 상태를 나타내는 장소이다. 그 중에 ‘在’ 앞에 명사나 명사성 단어가 주어일 때 뒤에 있는 서술어는 중첩(重疊)동사일 수 있다.

다음 ‘在’의 통사적 기능의 다른 측면인 보어로 쓰인다. 이때 ‘在’는 동작을 발생하여 사람이나 사물이 처하는 장소이다. ‘在…上’는 ‘打’, ‘落’ 등 동작의 완성과 상태의 발생을 보충한다.

나. 개사 ‘在’의 의미적 기능

개사 ‘在’의 의미 기능은 주로 사건 전체가 발생하는 장소, 사건 동작의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 동작이 도착하는 장소 3가지로 나뉜다. <표 7>과 같다.

<표 7> ‘在’의 의미적 기능

의미적 기능	예문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
전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1) 在 课桌上, 他 刻了一个 深深的 ‘木’字 에 책상 그 새겼다 하나 깊게 ‘木’라는 글자	그는 책상에 ‘木’라는 글자를 깊이 새겼다.
	(2) 在 在电话里, 他 沉默了 好久。 에 전화 그 참뵈었다 한참	전화에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	(3) 他 在 黑板上 写字 그 에 칠판 글씨를 쓰다	그는 칠판에 글씨를 쓴다.
	(4) 弟弟 在 屋里 哭 남동생 에서 방 안 울다	남동생은 방 안에서 울고 있다.
동작이 도착하는 장소	(5) 他 摔倒 在 地上 그 넘어지다 에 바닥	그는 바닥에 넘어졌다.

우선, 전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예문 (1)에서 ‘课桌’는 ‘在’ 뒤에 동작의 대상 장소가 되고 예문 (2) ‘在电话里’는 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여기서 ‘在’는 어떤 독립적인 발생의 동작이 아니라 뒤에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두 번째,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동작이 직접 발생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동작이 미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黑板’는 ‘写字’가 미치는 장소이다. 세 번째, ‘在 + 장소’는 동사 뒤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동작이 이동하는 종점이 되고, 즉 동작이 도착하는 장소이다. ‘在’ 앞에 나타난 동사는 이동 의미나 부착 의미를 가진 동작이어야 한다. ‘摔倒’는 단순적인 동작인데 ‘在 + 장소’와 함께 나오면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3. ‘-에, -에서’와 ‘在’의 대응

앞에 제시한 ‘-에, -에서’와 ‘在’의 의미를 살펴보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완전히 대응하는 관계는 아니다. ‘-에’와 ‘在’가 대응될 수 있는 의미가 주로 세 가지가 있다.³⁾ 구체적인 대응 관계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에’와 ‘在’의 대응

장소의 의미	한국어	중국어	대비상의 특징
존재하는 장소	(1) 우리 학교는 인천에 있다.	我们学校在仁川	‘在’는 ‘에’와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에 있다’와 대응, 이때 ‘在’는 개사가 아니라 동사임.
	(2) 오늘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	(在)图书馆人很多	‘에’는 ‘在’와 대응하는데 이때는 중국어에 ‘在’는 항상 생략함.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3) 나는 인천에 살고 있다.	我在仁川生活	‘에’는 ‘在’와 대응함.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장소	(4)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她坐在椅子上	이때 ‘에’는 ‘在’와 대응하는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 ‘在’는 항상 방위사와 같이 사용되고 ‘在 ……上/下/中/里’ 등 형태로 나타남
	(5) 그는 책을 책상에 놓았다.	他把书放在桌子上	

‘존재’라는 의미는 ‘-에’와 ‘在’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의미이다. 예문 중에 나타나는 ‘-에’는 모두 중국어 ‘在’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때의 ‘在’는 다르다. 예문(1)의 ‘在’는 ‘-에’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에, -에서 있다’와 대응한다. 이때 개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예문(2)의 ‘-에’는 ‘在’와 대응하는데 이때 ‘在’는 항상 생략된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에’는 보통 개사 ‘在’와 대응할 수 있다.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장소 ‘-에’는 ‘在’와 대응하는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항상 ‘在’와 방위사(方位詞)를 함께 사용하고 ‘在 ……上/下/中/里’ 등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 〈표 9〉는 ‘-에서’와 ‘在’의 대응 관계에 대한 표이다.

〈표 9〉 ‘-에서’와 ‘在’의 대응

장소의 의미	한국어	중국어	대비상의 특징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	(1) 학교에서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었다.	人们正在学校里拍摄	‘在’와 대응함
	(2)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他在图书馆学习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다.	(在)世界上最美的是爱情	‘在’와 대응하는데 이때 중국어에 ‘在’는 생략 가능함
	(4) 우리 반에서 영수가 가장 공부를 잘한다.	(在)我们班英淑学习最好	

‘-에서’와 ‘在’의 대응은 ‘-에’와 ‘在’의 대응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다.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에서’는 중국어 개사 ‘在’와 대응할 수 있다.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로서의 ‘-에서’는 개사 ‘在’와 대응할 수 있지만 항상 생략된다.⁴⁾

3) ‘-에’와 ‘在’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어에는 ‘-에’가 주로 생략되거나 다른 방향을 표시하는 개사(向, 到 등)로 대응시킨다. 예를 들면, 예문 ‘한국에 왔다’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来韩国’이다. 이때 ‘에’는 생략된다.

IV. 중국인 학습자의 ‘-에, 에서’의 오류 양상 및 교육 방향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에, -에서’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26명의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⁵⁾에게 설문 1과 설문 2를 실시하였다. 설문 1은 빈칸 채우기 문제 21개를, 설문 2는 설문1의 문제들을 중국어로 학습자들에게 ‘-에, -에서’를 사용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하는 문제들이다.

1. 학습자 오류 유형 및 양상

일반적으로 오류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이 형식에 따른 유형과 원인에 따른 유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표 10〉 일부 학자 오류 분류에 대한 견해⁶⁾

오류 유형	선행연구	오류 분류
원인에 따른 유형	Richard(1971)	간접 오류, 언어내적 오류, 발달 오류
	Corder(1981)	언어간 전이, 언어내적 전이, 학습 환경으로 인한 오류
형식에 따른 유형	Burt(1975)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
	Dulay, Burt and Krashen(1982)	언어학적 범주 유형(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의 오류); 표면 전략적 유형(누락, 첨가, 변형, 어순 도치 등)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류 유형은 주로 원인에 따른 유형과 형식에 따른 유형 두 가지가 있다. 조사 오류는 대체, 첨가, 누락처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고는 오류 원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에, -에서’의 오류를 네 가지 오류 유형으로, 즉 의미 혼동으로 인한 오류, 서술어 결합으로 인한 오류, 중국어의 직역으로 인한 오류,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 특성에 따른 오류로 구분한다.

첫째, 의미 혼동으로 인한 오류이다.

설문 (3) *지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에) 착륙하고 있다.

설문 (12) *철판에서(√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설문 (15) *철수가 벽에서(√에) 글자를 쓴다.

- 4) 출발점이나 시작점이 되는 장소 ‘-에서’는 ‘在’와 대응하지 못하지만 다른 출발점을 표시하는 개사 ‘从, 自, 于’ 등 대응시킬 수 있다.
- 5) 중급 학습자를 선택한 이유는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 안돼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고급 학습자는 ‘-에, -에서’에 대한 의미를 이미 잘 아는 상태여서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설문 대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 6) 왕단(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용사 교육 연구. 태학사.

행위의 진행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낼 때 ‘-에’를 써야 한다. 설문 (3), (12), (15)는 설문 대상자 26명 중에 각각 5명, 5명, 7명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3)의 ‘착륙하다’는 목적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에’를 써야 된다. 설문 (12)와 설문 (15)는 동사 ‘쓰다’와 관련된 문장인데 이 문장은 학습자들이 ‘-에’와 ‘-에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오류 예문이다. 예를 들면, 예문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쓴다.’는 ‘-에’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서 글자를 쓴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문 ‘선생님이 칠판에서 글자를 쓴다.’는 ‘-에서’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칠판 위에 서서 글자를 쓴다는 뜻이다. 이것은 ‘-에’와 ‘-에서’의 의미를 혼동해서 일으키는 오류이다.

둘째는 서술어 결합으로 인한 오류 유형이다.

설문 (6) *교실에서(√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어요.

설문 (12) *칠판에서(√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설문 (15) *철수가 벽에서(√에) 글자를 쓴다.

설문 (19)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에) 누워서 잤다.

위의 오류 예문을 살펴보면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장소를 나타내는 ‘-에’의 기능은 예상보다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설문 (6), (12), (15), (19)는 26명 중에 각각 7명, 5명, 7명, 5명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에게 ‘-에서’를 사용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에서’ 뒤에 동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쓰다’, ‘눕다’는 동사여서 ‘벽에서’, ‘침대에서’를 써야 된다고 답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서술어를 담당하는 단어의 품사에만 집중함으로써 범하는 오류이다. 위 예문의 ‘앉다, 쓰다, 눕다’ 등은 모두 그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장소나 위치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쓰다’의 경우는 ‘쓰는 곳’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에’를 사용한다. 명사가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곳을 나타낼 때 조사 ‘-에’를 써야 한다. 이때 항상 ‘눕다, 앉다, 찍다, 놓다, 쓰다, 붙이다.’ 등 동사와 같이 사용한다.

셋째, 중국어의 직역으로 인한 오류 유형이다.

설문 (10) *영수가 피부에서(√에) 약을 발랐다.

설문 (15) *철수가 벽에서(√에) 글자를 쓴다.

설문 (19)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에) 누워서 잤다.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대부분은 ‘在’로 대응할 수 있는데 ‘在’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도 머릿속에 저절로 ‘-에, -에서’와 ‘在’를 대응시키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외국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에 매우 능통한 수준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먼저 머릿속에 모국어로 문장을 구성한 다음 머릿속에 있는 언어 전환 장치를 이용하여 목표어로 번역하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다. ‘-에’, ‘-에서’를 실제 활용할 때 먼저 중국어 ‘在’가 나타나고 나서 ‘-에’, ‘-에서’의 여러 가지 의미 용법을 가지고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모국어인 중국어의 간섭으로 유발되는 오류이다.

넷째,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 특성에 따른 오류 유형이다.

설문 (14) *철수가 햇볕에(√에서) 피아노를 친다.

설문 (21) *철수가 전화에(√에서) 나한테 그 일을 알려 주었다.

‘-에서’는 ‘-에’보다 장소의 의미 분류가 덜 복잡해서 오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설문 (14)는 26명 중에 6명, 설문 (21)은 4명이 오류를 범했다. 학습자들이 ‘햇볕, 전화’와 같은 특정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류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집’과 같은 장소는 모든 학습자가 쉽게 정답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해될 수 있다.

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장소로서의 ‘에, 에서’의 교육 방향

일반적으로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는 주로 한국어 초급 교재에 등장한다. 초급 교재라서 상세한 설명보다 하나의 문법을 가지고 쉬운 예문을 들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림 한두 장씩을 첨가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다른 뜻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소로서의 ‘-에, -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장소로서의 ‘-에, -에서’는 모두 중국어 ‘在’로 대응할 수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장소로서의 ‘-에, -에서’를 정확하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앞부분에 ‘-에, -에서’에 대해 원인별로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을 분석했다. 이어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장소로서의 ‘-에, -에서’에 대한 교육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에’와 ‘-에서’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제시한 오류 유형에 맞춰 오류율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오류를 유형별로 교육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림으로 ‘-에’와 ‘-에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응하는 오류 유형은 의미 혼동으로 인한 오류 유형이다. 설명하는 예문은 설문조사 중에 나타난 (15)번 문제이다. 우선 ‘수가 벽에 글자를 쓴다.’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다음 문장 ‘*철수가 벽에서 글자를 쓴다.’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 문장은 벽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이라는 장소 위에 서서 글자를 쓴다는 뜻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학습자들은 이 그림을 보면 ‘-에’와 ‘-에서’가 이 문장에서 무슨 의미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에’와 ‘-에서’의 용법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관련 어휘를 입력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식에 주로 대응하는 오류 유형은 서술어 결합으로 인한 오류 유형이다. 우리는 ‘-에’를 배울 때 ‘-에’는 어떤 대상의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곳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일 때는 항상 동사 ‘앉다, 눕다, 놓다’ 등과 결합하여 쓰인다고 배운다. 이 의미를 가지는 ‘-에’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에’에 관한 이런 뜻을 가르칠 때 뒤에 붙일 수 있는 단어를 정리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후 실제 활용할 때 오답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모국어 간섭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중국어의 직역으로 인한 오류와 대응하여 교육하는 방법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어느 정도 모국어 간섭을 받을 것이다.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도 적지 않다. 모국어 간섭 현상이 가장 뚜렷한 것은 바로 외국어로 표현할 때 일단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머릿속에 모국어로 구성하고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이런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중국어가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교사가 가르칠 때 한국어와 중국어가 대응하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설명해준다. 완전히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준다. 의미를 쉽게 혼동하는 ‘-에’와 ‘-에서’는 중국어 ‘在’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에’와 ‘在’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어에는 ‘-에’가 주로 생략되거나 다른 방향을 표시하는 개사(向, 到 등)로 대응시킨다. 예를 들면, 예문 ‘한국에 왔다’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来韩国’이다. 이때 ‘에’는 생략된다.

넷째는 인식을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식에 대응하는 오류 유형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 특성에 따른 오류이다. 학습자들은 ‘-에서’ 앞에 붙이는 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에’를 잘못 쓴 경우이다.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원인이지만 결국 학습자들이 ‘-에서’의 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에서’를 가르칠 때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면 ‘집’이라는 간단한 어휘뿐만 아니라 ‘전화’, ‘햇볕’ 과 같은 어휘들도 설명해준다. 이에 학습자는 배운 예문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조사는 외국인들이 학습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명사나 동사와 함께 묶어 문형 연습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조사가 쉽게 생략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격조사 ‘-에, -에서’는 더욱 그렇다.

본고는 먼저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장소로서의 ‘-에, -에서’와 중국어 개사 ‘在’를 비교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부사격조사 ‘-에, -에서’를 쓸 때의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히고 장소

로서의 ‘-에, -에서’의 오류율을 줄이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오류 유형과 오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리고 교육 방안이라기보다는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에 대한 오류율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에, -에서’ 사용의 오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오류율을 줄이는 방법에 그치고 ‘-에’와 ‘-에서’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어에 대한 부사격조사 오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어 부사격조사에 대한 정확한 오류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15).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2**. 서울: 터뮤니케이션북스.
- 김석기(2011). **부사격 조사 교수 방안 연구-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태민국학연구원. Vol.8. 199-238.
-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 박덕유(2012). **학교문법론의 이해**. 역락.
- 염준(2007). **전치사 ‘在’와 조사 ‘에서, 에’의 대응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단(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용사 교육 연구**. 태학사.
- 왕소소(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에, -에서’의 교육 방안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81-96
- 석견·성운숙(2008).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 대조 연구**. 中國人文科學. 중국인문학회. Vol.42. 111-134.
- 신효경(2008).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에/에서’오류 개선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국어교과교육학회. Vol.15. 217-238.
- 조재형(2014).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비교 고찰**. 언어. 한국언어학회. Vol.39 No.4. 1021-1041.
- 강위에(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 ‘로’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화상(2012). **국어조사의 문법**. 서울: 지식과교양.
- Burt(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Vol.9, No.1 53-63.
- Corder, S. Pit.(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ulay, Burt and Krashen(1982). Language two.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J. C.(1971). A Psycholinguistic Measure fo Vocabulary Section, *IRAL* 8(2).
- 黄伯荣·廖旭东(2017).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 刘月华·潘文娉·故桦(2007).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 胡裕树, 许宝华(2011). **现代汉语**. 上海教育出版社.
- 杨奇婧(2016). **介词结构“在+处所”偏误分析和教学研究**. 扬州大学硕士学位论文.
- 郑攀(2013). **认知语言学视角下汉语介词“在”研究**. 沈阳师范大学硕士论文.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2016).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부록

설문조사 1

본 설문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효과적인 부사격조사 ‘에, 에서’ 교육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장에 있는 빈칸을 ‘-에’나 ‘-에서’로 채워 주십시오.

1. 우리 학교는 인천() 있다.	2. 오늘 도서관() 사람이 많다.
3. 지금 비행기가 인천공항() 착륙하고 있다.	4. 길() 친구를 만났다.
5. 우리 반() 누가 한국말을 제일 잘 해요?	6. 교실()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다.
7. 그녀는 의자() 앉았다.	8. 그는 책을 책상() 놓았다.
9. 이 근처() 구두를 고치는 집이 있어요?	10. 영수가 피부() 약을 발랐다.
11. 어제 회의()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12. 칠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13.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집() 쉬겠어요.	14. 철수가 햇볕() 피아노를 친다.
15. 철수가 벽() 글자를 쓴다.	16. 철수는 집() 그림을 그린다.
17. 그녀는 나무 밑() 서 있다.	18. 그는 햇볕() 빨래를 말린다.
19. 너무 피곤해서 침대() 누워서 잤다.	20.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 자랐다.
21. 철수가 전화() 나한테 그 일을 알려 주었다.	

설문조사 2

다음 중국어 문장은 부사격조사 ‘에, -에서’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1. 我们学校 在仁川.	2. 今天图书馆人很多.
3. 现在飞机在仁川机场进行着陆.	4. 在路上遇见朋友了.
5. 我们班谁韩语说的最好?	6. 教室里坐满了人.
7. 她坐在椅子上.	8. 他把书放在桌子上.
9. 这附近有修皮鞋的店吗?	10. 英珠在皮肤上抹了药.
11. 昨天会议上谁发言了?	12. 黑板上写着什么, 看不太清.
13. 太累了, 明天在家休息.	14. 哲秀在阳光下弹钢琴.
15. 哲秀在墙上写字.	16. 哲秀在家画画.
17. 她站在树底下.	18. 他把衣服晾在阳光下.
19. 太累了躺在床上睡了.	20. 我从小在首尔长大.
21. 在电话里哲洙告诉了我那件事.	

국문요약

다양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서의 ‘-에, -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在’에 대응하지만 중국어 개사 ‘在’는 장소로서의 ‘-에, -에서’와 완전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실제로 ‘에, -에서’를 사용할 때 의미를 혼동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장소로서의 ‘-에, -에서’와 중국어 개사 ‘在’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 사용의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히고 장소로서의 ‘-에, -에서’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제어 : ‘-에, -에서’, ‘在’, 중국인 학습자, 오류, 오류 개선 방향